

정부, BT산업 육성대책 “붓물”

산자부, 바이오의약품 설비 2007년 가동 ... 메디클러스터 구축

정부의 BT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붓물을 이루고 있다.

2006년 새로운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맡을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 설립이 가시화된다.

6월29일 대전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미래 바이오 혁신전략 보고회>에서는 바이오산업을 21세기 주요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와 연구계, 학계, 산업계의 역할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정부부처들은 각기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기술의 수요자인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병원을 중심으로 산·학·연을 융합시킨 혁신형 연구중심병원을 2006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시민 장관은 7월 공고를 거쳐 선정 절차에 들어가 2006년 2곳을 선정하고 8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중심형 혁신형 병원은 진료에만 치중하는 데서 벗어나 임상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국내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를 확대해 산·학·연 공동체인 대규모 <메디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유시민 장관은 “2006년 3개를 포함해 3년 이내에 15개 임상시험센터를 계획하고 있다”며 임상인프라 강화를 약속했다.

산업자원부도 태동기를 벗어나려는 바이오산업의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산자부는 국내 바이오기업의 선진시장 진출과 국산 의약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FDA 기준에 부합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2007년 7월경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은 “2007년 7월 1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기준에 맞는 생산시설을 가동하게 된다”며 “의약품의 특성상 전체 투자비의 60%를 차지하면서도 투자 위험성이 높은 임상시험에 대해 정부지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갑 차관은 또 “정부의 모든 프로젝트는 기획단계부터 산·학·연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농림부는 수입쌀 시판과 FTA 체결 확대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서 고부가가치 농작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한 농업생명공학 기술 실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농림부는 9월말 수원에 50만종의 유전자원을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첨단 농업유전자원 저장 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고회에서는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 제기도 잇따랐다.

Merck 장우익 부사장은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세계 100위에 2-3사가 포함되려면 무엇보다 과감한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한국은 신약개발 관련기술 가운데서도 바이오마커 등의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강조했다.

화학연구원 유성은 박사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총괄 조정 기능을 요구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신희섭 박사는 바이오기술이 세계적인 되기 위해서는 융합을 위한 타 분야의 투자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서구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실험에 필요한 시약 등의 연구장비 국산화를 통해 연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생명공학연구원 홍효정 박사는 신약개발을 위한 전임상 및 임상시험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30>